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 기질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 세 진¹⁾

신 나 리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불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유아기 자녀의 기질에 따라 이들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유아의 기질 분류를 위한 K-평균 군집화 및 *t*-test 분석 및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tepwise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기질은 쉬운 기질과 어려운 기질 집단으로 군집이 가능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쉬운 기질의 유아 집단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려운 기질인 경우 아버지가 생활지도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기 자녀가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 상호작용 효과는 쉬운 기질과 어려운 기질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자녀의 기질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부모의 두 양육특성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정서조절, 기질 유형, 어머니 양육불안, 아버지 양육참여도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8)을 확장한 것으로, 201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1)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binah2009@cbnu.ac.kr)

I. 서 론

정서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쁨, 슬픔, 공포 및 분노로 대표되는 기본적인 정서는 생애 초기부터 발현되는데, 이후 타인과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 정서가 분화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여은진, 이경옥, 2009). 정서 조절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김은경, 송영혜, 2008; 유지현, 이경남, 2017).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개별 유아가 긍정적이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초가 된다. 즉,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는 타인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지게 되며,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기여한다(김은경, 송영혜, 2008; 김정민, 2013; 김지연, 2016; 이진화, 임원신, 조성연, 2009; 이희연, 장경은, 2015; 채영문, 2012; Pellegrini & Glickman, 1990). 반면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 수준이 높아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 특히 유아기에 정서조절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이후 발달 단계에서도 정서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중요한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김희진, 한영미, 2009; 박진성, 2012; Elias & Clabby,

199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간의 상호교류과정을 통해 발달하기 때문에(박지숙, 박성연, 2008)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저출산으로 인해 가정 내 자녀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양육 특성과는 다른 현대 부모의 특성으로 연구자들은 최근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박애경, 2015).

어머니의 양육불안이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긴장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안이란 구체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행이나 위험에 대해 근심이나 긴장을 경험하는 감정 반응을 의미한다(신민진, 하은혜, 2010). 전통적으로 불안은 기질 변인에 영향을 받는 특성 불안과 상황 변인에 영향을 받는 상태 불안으로 구분되는데(Lazarus & Averill, 1972; Spielberger, 1972), 특성 불안은 일반적으로 완벽주의적인 특성과 통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와 관계가 되어, 특성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와 목표를 설정하고 양육시 실수를 허용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위지희, 채규만, 2015). 상태 불안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위험한 반면 자신은 취약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으로, 자녀 양육 맥락에서 과보호로 이어지기 쉽다(Sabine & Gail, 2006). 즉,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중 양육맥락에 특정한 불안으로, 개인의 불안 수준에 따라 달

라진다.

특히 양육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유아기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유아의 부정적인 자기조절로 이어지게 된다(김현미, 도현심, 2004; 장영숙, 2009). 따라서 어머니 양육불안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허기순, 김영희, 2004).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기본적인 불안(이은정, 김영희, 2015) 등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양육과 관련한 개인 내적 특성인 양육효능감(남궁령, 2014; 유지현, 이경님, 2017) 또는 양육스트레스(박진성, 2012; 조안나, 2012)에 초점을 두어, 양육불안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공동 책임이 되었다(김근혜, 2013). 특히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주양육자로 대표되는 어머니의 보완적인 양육자가 아닌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자의 역할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Lamb, 2010).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참여가 자녀의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발달과 같은 발달 전반에 기여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는데(이현정, 2005), 이중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지혜, 2014; 이배, 김경숙,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놀이와 생활지도에 참여하며 자녀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정서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에(송미란, 2016), 결과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또한 증진된다(박익새, 남은영, 2015; 유지현, 이경님, 2017; 최미숙, 송순옥, 2014). 반면 아버지가 냉정하거나 강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유아기 자녀 또한 분노 표현을 자주 하는 등의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을 하게 된다(박혜경, 박성연, 2002; Gottman & Katz, 1989). 이러한 결과는 유아는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Lamb(2010)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자녀 관계 내에서 자녀의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내에서 배우자인 어머니의 특성과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윤서희, 2014).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어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 수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절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반면(김복선, 2011), 양육에 느끼는 부담감은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수미, 민하영, 2007). 특히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

녀와의 분리불안이 유아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인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보리, 2010).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요인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중재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기질이 있다(박진성, 2012). 기질은 태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가지는 내적 특성으로(김현나, 이경남, 2008),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특성을 말한다(김정민,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질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적응적이고 규칙적인 기질인 유아는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운정, 2014). 반면에 활동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확률이 높아 정서조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박성연, 2002). 또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 슬픔 혹은 짜증과 같은 정서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낮은 정서조절능력 수준을 보였다(Rothbart, Ahadi, & Hershey, 1994). 즉, 개인은 타고난 기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에도 차이를 보이므로 기질은 정서조절에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양육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유아의 행동 특성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이는 양육 특성은 달라진다. 실제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정혜옥, 2014), 적응성 수준이 높은 순한 기질의 유아를 둔 부모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점옥, 2009). 따라서 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불안 수준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기질 유형 분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먼저 Thomas와 Chess (1977)는 기질을 활동수준, 규칙성, 적응성, 접근성, 반응역치, 반응강도, 기분, 주의 산만성, 지구력의 9가지 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차원별 특성의 조합에 따라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로 분류하였다. 이후 Gordon (1981)은 활동성, 기분,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의 상대적인 점수를 사용하여 기질 유형을 판별하였다. 그러나 기질 차원의 조합으로 유형화하는 방식을 실제 기질 판별에 적용하여 보면, 순한 아동, 느린 아동 및 까다로운 아동이 각각 40%, 15%, 1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아동은 세 기질 유형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수준이나 긍정적 정서, 규칙성 등에서 독특한 조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stelnik, Soderman, Whiren, Rupiper, & Gregory, 2015). 기질의 유형 분류 체계를 국내에 적용한 천희영(1992) 또한 우리나라 유아 중 어느 유형의 기질에도 속하지 않거나 여러 기질의 조합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밝힌 바 있다. 때

문에 최근 수행되는 기질 연구는 유아의 기질을 전통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질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는 대신 정서성, 활동수준, 규칙성, 사회성과 같은 기질 차원의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기질의 특정 차원이 어떤 행동 특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기질 유형 분류를 통해 개인차를 설명하게 해주는 접근방법과는 거리가 있으므로(차혜경, 신나리, 2016). 보다 타당한 방식으로 개별 유아의 기질 유형을 판별하고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인 정서조절능력은 유아기에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한 유능감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불안 및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부모 양육 특성의 영향력이 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녀의 기질 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어떠하며, 이러한 양육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어머니 양육불안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목적으로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은 어떠한 군집으로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질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 양육불안이 자녀의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만 3, 4, 5세 유아를 둔 어머니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선정은 온라인 패널관리 전문기관의 패널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대상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유아의 평균 연령은 4.07세($SD = 4.1$)이고, 남아는 52.0%, 여아는 48.0%로 남아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외동은 42.9%, 둘째 이상은 30.3%, 첫째는 26.8%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2세($SD = 4.0$)로 30대가 68.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2.1%, 전문대 졸업이 21.7%,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55.4%로 반수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외 직업군은 10%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3세($SD = 4.3$)로 30대가 7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3.3%, 전문대 졸업이 22.2%,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4.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주부는 37.4%인 반면 62.6%가 취업 중으로, 취업 중인 어머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유아 및 가정의 일반적 특성 ($N = 406$)

특성		$n(\%)$
유아		
연령	만 3세	116(28.6)
	만 4세	145(35.7)
	만 5세	145(35.7)
성별	남아	211(52.0)
	여아	195(48.0)
출생 순위	외동	174(42.9)
	첫째	109(26.8)
	둘째 이상	123(30.3)
아버지		
연령	20대	11(2.7)
	30대	277(68.2)
	40대	118(29.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6(16.3)
	전문대졸	88(21.7)
	대졸 이상	252(62.1)
직업	사무직	225(55.4)
	관리직	23(5.7)
	전문직	47(11.6)
	판매서비스직	41(10.1)
	생산 근로직 및 단순노무직	46(11.3)
	기타	24(5.9)
어머니		
연령	20대	15(3.7)
	30대	323(79.6)
	40대	68(16.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9(14.5)
	전문대졸	90(22.2)
	대졸 이상	257(63.3)
취업 여부	미취업	152(37.4)
	취업	254(62.6)

2. 측정도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김지윤, 도현심과 김민정(2008)이 번안한 ‘정서조절 체크리스트’ 중 적응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문항 9개를 사용하였다. 대표 문항으로는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조절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α 는 .72로 산출되어 적절한 수준이었다.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Thomas, Chess와 Korn(1982)에 의해 개발된 ‘Parent Temperament Question for Children’을 김용희(1990)가 번안하고 김성민(2001)이 수정한 부모보고용 유아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활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5개 차원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차원의 대표 문항으로는 ‘날씨가 나빠서 집안에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다(활동성)’,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자주 다툰다(기분)’, ‘공원이나 낯선 곳에 가서도 처음 보는 아이들과 금방 어울린다(접근성)’,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어린이집, 학원 등)에 쉽게 일과에 따른다(적응성)’, ‘시장에 데리고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탕, 장난감, 옷 등을

사주지 않으면 크게 울고 때를 쓴다(반응강도) 등을 들 수 있다. Likert식 4점 척도로 제작되어(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항상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특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접근성, 적응성 및 반응강도가 .73, .61, .67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기분과 활동성은 각각 .33과 .58로 산출되었다. 이에 하위차원별 문항 특성을 검토한 결과, 활동성 차원의 경우 1개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66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분 차원은 각 문항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기분 차원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활동성에서 1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31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불안

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위지희와 채규만(2015)이 개발한 '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본 척도의 대표 문항은 '나는 내가 양육을 잘 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Cronbach's α 는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Lamb(1975)의 연구를 토대로 김정과 이지현(2005)이 제작한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에 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본 도구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및 가사활동

참여의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생활지도 차원에 해당하는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차원의 대표 문항으로는 '자녀와 함께 놀이나 취미생활(등산, 스포츠, 낚시)을 한다(여가활동)', '자녀가 실수했을 때 잘한 것과 잘못된 점을 자상하게 일러 준다(생활지도)'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여가활동이 .93, 생활지도가 .91로 우수한 편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S시에서 임의로 선정된 어린이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만 3-5세 유아를 둔 어머니 3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진술방식과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조사는 2017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2011년에서 2013년생의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4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연구대상 선정은 온라인 패널관리 전문기관의 패널 중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연구를 소개한 후, 부모가 동거하며 기관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패널에 한해 목표한 연구대상의 수가 확보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연구대상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37부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제외한 406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를 이용하여 주요 변인의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기질 유형 분류를 위한 K-평균 군집화 분석 후 *t*-test와 *F*-test를 실시하였다. 전통적으로 Gordon(1981)의 기질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 5개 하위차원의 점수를 기준으로 기질 차원의 조합에 따라 기질 유형을 분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5개 하위차원 중 기분 차원의 낮은 내적합치도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어, Gordon(1981)의 분류 기준을 대신 기분 차원을 제외한 4개 하위차원의 점수를 이용하여 K-평균 군집화 방법으로 기질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어서 주요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본 분석은 상관분석 후 stepwise 방식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은 자료를 평균중심화(centering)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 기질의 군집 분류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기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 분류를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를 이용한 군집분석은

이론적 가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Burns & Burns, 2008), 가장 먼저 군집의 수를 가정하였다. 전통적으로 기질의 유형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및 느린 기질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가 35% 가량으로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4개의 군집을 가정할 수 있으며, 까다로운 기질과 느린 기질에 속하는 경우는 약 10~15% 가량에 불과하므로 군집으로 추출되는 개수는 2개에 불과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군집의 수를 2개부터 4개까지 지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Gordon(1981)의 기질 유형 판별 기준에 따르면, 순한 기질은 접근성, 적응성 및 기분 차원의 점수가 상위 집단인 반면에 반응강도는 하위 집단에 속한 유아이며,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접근성, 적응성 및 기분 차원의 점수가 하위 집단이고 반응강도가 상위 집단에 속한 경우이다. 한편, 느린 기질은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및 활동성의 점수가 하위 집단에 해당하는 유아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2개 군집의 경우 4개 하위차원에 걸쳐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났다. 먼저 군집 1은 접근성과 적응성이 높은 반면 반응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순한 기질로 판단되었다. 반면 군집 2는 접근성과 적응성이 유의미하게 낮고 반응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군집 2에서 활동성이 높아 전형적인 까다로운 기질 유형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2개의 군집의 경우 쉬운 기질과 어려운 기질로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유아 기질의 군집 분석 결과

(N = 406)

구분	활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2개 군집				
군집 1 (n = 164)	2.39	2.99	3.21	2.11
군집 2 (n = 242)	2.51	2.40	2.83	2.38
t	-3.00**	19.36***	15.32***	-8.33***
3개 군집				
군집 1 (n = 162)	2.60 ^b	2.37 ^a	2.76 ^a	2.49 ^c
군집 2 (n = 151)	2.14 ^a	2.62 ^b	3.07 ^b	2.08 ^a
군집 3 (n = 93)	3.29 ^c	4.00 ^c	3.75 ^c	2.13 ^b
F	141.06***	222.64***	119.41***	79.95***
4개 군집				
군집 1 (n = 106)	2.85 ^d	2.52 ^b	2.84 ^b	2.45 ^b
군집 2 (n = 72)	2.71 ^c	3.22 ^d	3.30 ^d	2.15 ^a
군집 3 (n = 94)	2.27 ^b	2.31 ^a	2.73 ^a	2.50 ^b
군집 4 (n = 134)	2.16 ^a	2.64 ^c	3.10 ^c	2.04 ^a
F	184.86***	156.79***	108.37***	67.63***

p < .01. *p < .001.

3개로 기질의 군집을 구분한 경우 또한 4개 하위차원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집 1은 접근성과 적응성이 낮고 반응강도가 높은 반면 활동성은 평이한 수준이므로 까다로운 기질로 판단되었다. 군집 2는 활동성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반응강도 또한 낮았으나, 느린 기질로 유형화되기에는 접근성과 적응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복합 기질로 볼 수 있었다. 군집 3의 경우 접근성과 적응성이 높아 순한 기질의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하위차원인 반응강도가 중간 수준으로 보고되어 군집 3을 순한 기질로 보

는 복합 기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4개 군집을 추출한 결과를 보면, 활동성, 접근성 및 적응성은 4개 집단의 평균이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반면 반응강도는 군집 2와 4가 낮고 군집 1과 3이 높았다. 먼저 반응강도가 높은 군집 1의 경우 접근성과 적응성은 세 번째로 높아, 까다로운 기질 유형으로 판단되었다. 군집 2는 접근성과 적응성이 가장 높고 반응강도는 낮은 집단에 속해, 순한 기질에 해당하였다. 군집 3은 접근성과 적응성이 가장 낮고 활동성도 세 번째로 높아 느린 기질의 특성을 일부 보였으나, 반응강도가 유의미하게 높아 복합 기질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오히려 군집 4가 활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과 적응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응강도 또한 낮은 집단에 해당하여, 느린 기질로 볼 수 있었다.

종합하면,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3개 집단을 추출하는 경우 162명이 해당하는 까다로운 기질로 판정이 가능한 군집이 추출되었으나, 나머지 2개 집단은 해당하는 기질 유형이 없어 복합 기질로 판단되었다. 4개 집단으로 추출한 결과는 106명이 분포한 까다로운 기질과 72명이 분포한 순한 기질, 그리고 134명이 분포한 느린 기질이 군집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나머지 한 집단은 복합 기질로 판단되었다. 2개 집단을 추출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순한 기질이 164명, 까다로운 기질이 242명으로 군집화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유형을 2개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군집 1에 해당하는 유아를 쉬운 기질로, 군집 2를 어려운 기질의 유아로 명명하였다.

2. 유아의 기질 군집별 주요 변인 간 기술적

특성 및 상관

어머니의 양육불안, 아버지의 여가활동 및 생활지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의 평균을 살펴보면, 이 모든 변인들의 평균은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3점보다 낮게 보고되었다(표 3 참조). 먼저, 쉬운 기질인 유아의 부모의 양육특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적관계를 보인 반면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아버지의 생활지도는 정적관계를 보이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려운 기질의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정적인 관계로 발견되었다. 즉, 유아 기질 유형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조

표 3.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N = 406$)

구분	1	2	3	4
1. 모 양육불안	1.00	.00	-.01	-.26**
2. 부 여가활동	-.08	1.00	.69**	.26**
3. 부 생활지도	-.09	.72**	1.00	.22**
4. 유아 정서조절	-.23**	.29**	.37**	1.00
<i>M</i>	2.46	2.64	2.98	2.27
<i>SD</i>	0.39	0.40	0.31	0.34

주1. 유아 기질은 4점 척도, 그 외 변인은 5점 척도임.

주2. 대각선 위는 쉬운 기질($n = 164$), 대각선 아래는 어려운 기질($n = 242$)임.

* $p < .05$. ** $p < .01$.

절능력 수준은 높아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기질 군집별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 집단을 구분한 후, Model 1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투입되었으며, Model 2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해당하는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지도참여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Model 3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효과가 투입되었다. 특히 상관분석결과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해당하는 여가활동과 생활지도의 상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효과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수들은 평균중심화를 한 후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N = 406$)

구분	Model 1			Model 2		
	<i>B</i>	<i>SE</i>	β	<i>B</i>	<i>SE</i>	β
쉬운 기질 ($n = 164$)						
모 양육불안	-.16	.05	-.26***	-.16	.05	-.26***
부 여가활동				.14	.04	.28***
부 생활지도				-	-	-
ΔR^2					.14	
R^2		.07			.15	
<i>F</i>		12.03**			13.78***	
어려운 기질 ($n = 242$)						
모 양육불안	.14	.04	-.20**	-.12	.04	-.17**
부 여가활동				-	-	-
부 생활지도				.21	.04	.35***
ΔR^2					.15	
R^2		.04			.16	
<i>F</i>		10.11**			22.53***	

** $p < .01$. *** $p < .001$.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odel 1에서는 두 기질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유의미한 부적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추가 투입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영향력은 기질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쉬운 기질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아버지가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증진된 반면 어려운 기질의 유아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생활지도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투입된 이후에도 어머니 양육불안의 효과는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을 예측하는데 유의하였다.

한편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된 Model 3의 경우, 새롭게 투입된 변인이 모두 제외되어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제외된 변인들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투입된 변인은 예측력이 유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균중심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VIF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경우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군집 분석을 통해 개별 유아를

쉬운 기질 또는 어려운 기질로 분류하였으며,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이들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의 4개 차원을 투입한 군집분석을 통해 개별 유아의 기질을 판별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상이 된 유아들은 쉬운 기질과 어려운 기질의 2개 유형으로 묶였다. 이는 Thomas와 Chess(1977)가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NYLS)를 통해 기질의 유형을 분류한 이후 영유아의 기질은 크게 3개 유형으로 이해되어 온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Thomas와 Chess(1977)의 연구에서도 약 35%에 해당하는 유아가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Carey와 McDevitt (1978)는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느린 기질 외에 중간-고(intermediate-high)와 중간-저(intermediate-low) 기질을 추가하여 5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천희영(1992) 또한 기질 유형을 크게 조절형과 조절 결함형으로 구분하고, 조절형을 일반적인 조절형과 소극적 조절형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3개 유형과는 다른 유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유아의 기질은 일반적으로 적응적이고 쉬운 기질과 그렇지 못한 기질로 크게 구분되므로, 2개 집단으로 유형화된 본 연구의 결과가 크게 기존의 기질 유형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쉬운 기질로 판별된 유아가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적응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유아의 비율은 기존 연구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 비율로 판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개 유형으로 분류한 본 연구의 특성상 어려운 기질의 유아가 과반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유아의 기질 유형 분류를 실시한 차혜경과 신나리(2016)의 연구 결과, 까다로운 기질에 해당하는 비율이 만4세의 경우 44%에 육박하여 순한 기질의 유아(32%)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성이나 반응성, 적응성 측면에서 볼 때 과한 감정 표현과 행동 수준이 부정적인 경우, 평정자인 주양육자가 이를 과도하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까다로운 유아로 판별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유아의 기질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군집분석은 개체들의 특징에 따라 서로 비슷한 무리를 묶기 때문에 분석 자료의 특성에 민감하게 달라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어려운 기질로 판별된 유아의 경우, 쉬운 기질의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성을 지닐 뿐,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까다로운 특성이 덜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질 차원 중 기분 차원의 신뢰도가 낮았던 점은 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기질 유형 분류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 없이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며(박덕승, 2004; 백경라, 2009; 허지은, 2005), 내적합치도를 보고한 연구 중 .70 이상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으나(정미숙, 2013), 본 연구와 같이 .50 이하로 낮게 보고된 경우도 있다(차혜경, 신나리, 2016). 본 연구에서

Thomas 등(1982)의 기질 척도는 기질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질 척도의 타당화를 통해 유아가 기쁘고 유쾌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이 개별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적 무드를 측정하는 동질적인 문항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유아의 기질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한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기 자녀가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심해지며, 자녀의 행동에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김현미, 도현심, 2004; 장성오, 김용미, 2011; 조안나, 2012; 허기순, 김영희, 2004). 특히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서조절능력까지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양연숙, 조복희, 2001; 임희수, 박성연,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불안 중 양육불안은 자녀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에 따른 불안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질 변인에 실망, 자녀에 대한 불신 등으로 대표되는 불안으로, 어머니의 심리 내적인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자주 경험하게 된다(위지희, 채규만, 2015). 실제로 어머

니의 불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한 Gerlsma, Emmelkamp와 Arrindell(1990)은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애정적이지 못하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양육함을 밝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 어머니의 불안이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시사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Gerlsma 등(1990)의 메타분석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비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견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나 방임과 같은 극단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어머니의 우울보다는 불안이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일상적인 양육환경을 부정적인 톤으로 조장하는 양육불안으로 발현되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환경은 단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육행동에 기인한다. 서구사회에서는 출산을 경험한 산모가 자녀 양육을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이 이후 양육행동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관심을 두고,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유아기가 아닌 영아기부터 탐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해오고 있다(Challacombe & Salkovskis, 2009; Feldman et al., 2009). 이에 국내에서도 출산 이후 지속되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정서조절과 같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과 경로를 종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쉬운 기질의 유아인 경우 아버지의 여가활동이, 어려운 기질의 유아인 경우 아버지의 생활지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유아기 자녀로 하여금 자기인식과 자기조절능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는데(안라리, 박화윤, 신인영, 2013; 윤현경,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다. 쉬운 기질의 유아의 반해 어려운 기질의 유아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적응성이 낮고 규칙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등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어려운 기질의 유아가 예절이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 외에 아버지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유아가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맥락이 일관되게 조성됨으로써 정서조절능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쉬운 기질의 유아는 변화되는 상황과 규칙을 쉽게 받아들이고 부적절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으므로 아버지의 생활지도를 통한 양육참여 수준은 정서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아버지와의 여러 여가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정서표현 능력은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해소시켜 정서조절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여가활

동 참여와 생활지도로 구분하여 본 국내연구의 경우 대부분 생활지도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기여하는 반면 여가활동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지희, 문혁준, 2005; 지세희, 2007; 최미숙, 송순옥, 2014), 유아의 기질 유형별로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좀더 의미있게 해석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 또는 나들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조성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효과는 쉬운 기질의 유아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기질과 같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여가활동 참여의 긍정적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쉬운 기질과 어려운 기질 유아 모두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라는 중재적인 행동으로 상쇄되거나 심화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으나, Model 2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추가된 이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 또한 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서로 독립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불안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조절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기초로 하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을 어머니의 보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응답자인 어머니의 주관적인 생각과 기대가 개입되어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관찰이나 time diary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자료수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질의 하위차원 중 기분 차원은 자료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전통적인 방식의 기질 유형 분류가 아닌 군집 분류가 이루어졌다. 군집분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질성을 극대화한 분석에 해당하므로(이성석, 1997), 개별 유아의 쉬운 기질 집단과 어려운 기질의 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계량적으로 볼 때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는 기질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유형화된 순한 기질 및 까다로운 기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기분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과 동시에 기존의 기질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관련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아 중 어려운 기질로 판별된 유아의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으며 느린 기질은 판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느린 기질 유형과 기질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아까지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의 유형을 다른 접근방법으로 시도하였으며, 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영향력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근혜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선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민 (2001). 유아의 기질, 성 및 형제 유무에 따른 놀이행동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 (1990).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영역 선택 및 놀이형태: 4세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송영혜 (2008).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정서조절양식, 정서반응태도와 유아의 정서 능력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43-64.
- 김 정, 이지현 (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정민 (2013). 실행기능과 기질이 유아의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2016). 유아의 정서성, 정서조절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현나, 이경님 (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희진, 한영미 (2009). 유아의 도덕적 자아와 정서조망수용 및 정서조절 능력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195-217.
- 남궁령 (2014).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정서표현성, 어머니 양육 효능감, 유아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3), 131-157.
- 민지혜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아의 정서 지능 유아 문제행동간의 관계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덕승 (2004). 유아의 기질과 다중지능과의 관계. 교수논문집, 8, 383-407.
- 박애경 (2015).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우울간의 상관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375-392.
- 박윤정 (2014).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익새,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지숙, 박성연 (2008).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4), 1-16.

- 박진성 (201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5), 253-272.
- 박혜경,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백경라 (2009).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란 (201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안라리, 박화윤, 신인영 (2013).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645-2652.
- 양연숙, 조복희 (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 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 여은진, 이경옥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 조절간의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75-295.
- 위지희, 채규만 (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945-970.
- 유지현, 이정님 (2017).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277-303.
- 윤서희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경 (2010). 아버지의 정서적 공감과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22(3), 191-206.
- 이보리 (2010). 어머니 분리불안과 아버지 양육 참여도, 부부 애착안정성이 유아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석 (1997). 군집분석에서 군집갯수에 관한 연구. 응용과학연구, 6(1), 217-229.
- 이수미, 민하영 (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19-225.
- 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 어머니의 언어 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283-305.
- 이은정, 김영희 (2015). 어머니의 부부적응, 우울과 불안, 정서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9(1), 47-60.
- 이지희, 문혁준 (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75-95.

- 이진화, 임원신, 조성연 (2009). 어머니의 놀이 신념, 유아의 정서능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3), 149-170.
- 이현정 (2005).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 장경은 (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0(1), 5-34.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성오, 김용미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도르프교육연구*, 3(1), 91-111.
- 장영숙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4(3), 207-225.
- 정미숙 (2013). 영아의 기질을 고려한 교사의 놀이지원에 관한 실험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점옥 (2009).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옥 (2014).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만족도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339-360.
- 조안나 (201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유아의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10(2), 1-21.
- 지세희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혜경, 신나리 (2016). 유아의 다중지능과 기질유형이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79-97.
- 채영문 (2012). 유아, 아버지 배경변인과 아버지 애착유형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15, 83-101.
-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허기순, 김영희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관계,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8(1), 25-52.
- 허지은 (2005).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rns, R. B., & Burns, R. A. (2008). *Business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using SPSS*. Thousand Oaks, CA: Sage.
- Carey, W. B., & McDevitt, S. C. (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ediatrics*, 61(5), 735-739.
- Challacombe, F., & Salkovskis, P. (2009).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maternal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 panic disorder on parenting and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7), 848-857.
- Elias, M. J., & Clabby, J. F. (1992). *Building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Guidelines from a school-based program*.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Feldman, R., Granat, A., Pariente, C., Kanety, H., Kuint, J., & Gilboa-Schechtman, E. (2009). Maternal depression and anxiety across the postpartum year and infant social engagement, fear regulation, and stress reactiv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8(9), 919-927.
- Gerlsma, C., Emmelkamp, P. M., & Arrindell, W. A. (1990). Anxiety, depression, and perception of early parenting: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3), 251-277.
- Gordon, B. N. (1981). Child temperament and adult behavior: An exploration of "goodness of fi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1(3), 167-178.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Kostelnik, M. J., Soderman, A. K., Whiren, A. P., Rupiper, M. L., & Gregory, K. M. (2017).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역). 파주, 경기: 교문사.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4), 245-266.
- Lamb, M. E. (2010).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Lazarus, R. S. & Averill, J. R. (1972).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pp. 241-284). New York: Academic Press.
- Pellegrini, A. D., & Glickman, C. D. (1990). Measuring kindergartners' social competence. *Young Children*, 45(4), 40-44.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1), 21-39.
- Sabine W., & Gail S. S. (2006).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New Harbinger.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Korn, S. J. (1982). The reality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8(1), 1-20.

1 차원고접수 : 2018.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8. 11. 20.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Anxiety and Paternal Child-Rearing Involvement on Emotion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Children's Temperament Types

Jeong, Se Jin

Shin, Nary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mother's parenting anxiety and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temperament typ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406 mothers with their child aged from 3 to 5 years old were surveyed through an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 Using SPSS 21.0,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 K-means clustering, *t*-test, ANOVA,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emperament of young children was grouped as easy type and difficult type. Also,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mother's anxiety level; father's involvement in recreation with their child with easy temperament increased the level of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while father's involvement in guidance for their child with difficult temperament led to higher level of emotional regul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is a partial difference in predictors affecting the level of emotional regulation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e their temperament.

Keywords: emotional regulation, temperament type, maternal parenting anxiety, paternal child-rearing involvement